

정유기업, 가격정보 제공 “중단”

GS칼텍스 이어 SK도 중단 결정 ... 이종가격 비난에 실효성 없어

GS칼텍스는 앞으로 석유가격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6월20일 발표했다.

GS칼텍스는 그동안 주간 단위로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변동 등을 감안해 휘발유, 등유, 경유의 세후 공장도가격을 책정해 매주 화요일 오후 언론사에 제공해왔다.

GS칼텍스는 소비자들에게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기준가격을 제시해왔으나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정보 제공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판단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6월20일 일단 가격정보를 내놓은 SK도 앞으로 가격정보 제공 중단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S-Oil과 현대오일뱅크는 지금까지 아예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편, SK는 6월21일부터 휘발유 세후공장도 가격을 리터당 8원 내린 1470원으로 정했으며, GS칼텍스도 6월 20일부터 휘발유값을 소폭 낮춘 것으로 알려져 오랜만에 2주 연속 인하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SK는 경유가격을 1231원으로 8원 인상했고,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도 각각 872원, 867원으로 6원씩 올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21>